

■ 주요 업무 사례 ■

'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'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여 무료 변론

지평은 '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'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여 무료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스토킹 및 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다투어 왔는데, 피해자 가족들은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여 그간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.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의 지원 요청으로 무료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
[관련 기사]

- 오마이뉴스 - "스토킹은 관계를 위한 노력" 이런 말 막으려면(2016. 7. 28.)
- 여성신문 - 가락동 스토킹 살인 3개월...살인범 법정서 "협박·스토킹 안했다"(2016. 7. 19.)

[담당 변호사]



최정규 변호사



여연심 변호사



김선국 변호사



구정모 변호사